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4호 【루게 제25207호】 주제 105 (2016)년 3월 4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우리 국가의 자위적  
선력인 핵억제력강화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  
호발사를 결고 전례  
가 없는 날강도적인 새  
로운 《제세결의》를 조  
작하여 주권국가의 자주  
적권리까지 비법화하는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 경제적  
압력과 공갈, 군사적침  
략행위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주권국가라면 마땅히  
행사하게 되어있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  
개발권마저 범칙하고 자  
위적인 핵억제력보유가  
국제법위반으로 된다고  
불아붙이면서 전대미문  
의 악랄한 반공화국 《제  
세》소동에 미쳐남뛰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추호  
도 용납할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우기 우리 혁명의 수뇌  
부 《제세결의》를 노린  
전하무도한 《참수작전》  
을 떠들어대면서 술한 특  
수작전무력들과 핵살인  
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  
적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의 코앞에서 《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합동  
군사연습을 거러낌없이  
벌려놓음으로써 지금까  
지 말로나마 《년례적》  
이며 《방어적》인 훈련  
이라고 정당화하던 합동  
군사연습의 과격치한 간  
판마저 뚝뚝 벗어던지고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폭  
발시킬 위험한 전쟁도박  
을 하러 하고있는 침략자  
들의 흉심이 드러난 이상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불  
가피회한 것으로 되었다.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존엄있게 살아



비행조종안정성을 최신  
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  
히 도달시키고 탄의 위력  
을 높이는 문제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  
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직접적인 지도와 가르  
치심을 받으며 3년이라  
는 짧은 기간에 연구개발  
완성된 신형대구경방사포  
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있는 정밀유도  
체제를 갖춘 첨단장거리  
대구경방사포체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지도밑에 또다시 진행  
하는 신형대구경방사포  
조종방사탄전투부위력판  
정을 위한 시험사격에 참  
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은 끝없  
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배  
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께서는 김시소에서 신형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  
계획과 조종방사탄

감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  
가를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는 오늘의 현  
실은 강력한 방위력을 가  
질 때에만 침포무도한 제  
국주의와 단호히 맞서 자  
기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상식도 리성도 모르고 부  
정의의 힘을 함부로 휘두  
르는 무지막지한 침략자,  
호전광들은 오직 힘으로  
압박해 온다는것이 바로  
정의적인 힘의 본리이다.

전체 조선인민이 자기 삶  
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  
는 우리 운명의 눈신태양  
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생  
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

범리행위를 저지르고있는  
철천지원수 미제와 천하에  
돌도 없는 사악한 박근  
해역적무리들에 대한 치  
솟는 보복의지를 안고 원  
수적멸의 전투명령만을  
기다리고있는 격전전야  
의 시기에 조선인민군  
예비모병부대들에 실전  
배비하게 되는 신형대구  
경방사포의 조종방사탄  
전투부위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형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  
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애 동지,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  
장들인 홍영철동지, 김  
정식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목군상장 윤  
동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현지에서 국방과학  
부문과 군수공장의 일  
군들, 과학자, 기술자들  
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2년에 현  
대에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강위력한 타격수단  
인 신형대구경장거리방  
사포개발을 직접 맡기  
하시였으며 지난 3년간  
개발단계의 대구경방사  
포 시험사격을 무려 13  
차례나 화선에서 직접  
지도하시며 조종방사탄

의 전술기술적제원을 구  
체적으로 료해하시이고  
시험사격명령을 내리  
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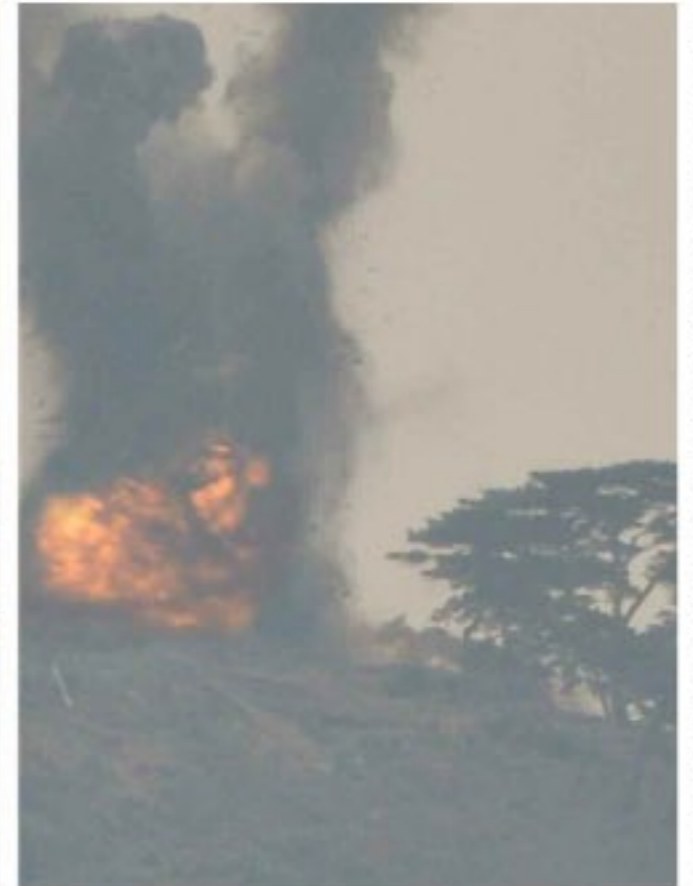
순간 우리 군대와 인  
민의 멸적의 기상이 어  
린 방사탄들이 시별건  
불줄기를 내뿜으며 거  
세차게 날아올라 푸른  
하늘가에 원수적멸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  
기였다.

과편지회란, 지하침투  
단, 산포란에 의한 여  
러가지 사격방식으로  
진행한 시험사격에서  
는 고에너지를 집중하  
여 위력을 높인 방사탄  
전투부의 파괴살상력  
이 놀라운 정도로 위력  
하다는것을 검증확인  
하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조종방사탄의 명중성과 적대상물로 가삼하여 견고하게 설치한 인원, 땅크, 포, 전투차온패부들을 공가루같이 부서뜨리는 전투부의 놀랄만한 위력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수들을 전멸시킬 또 하나의 강위력한 주체란, 통일란을 쏘수 있는 위업높은 로동당시대의 주체무기가 연구개발성된것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려

주체적인 국방력강화발전예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당의 국방과학기술증시정책이 낳은 자랑스런 결실인 동시에 우리의 자립적인 국방공업의 위력이 얼마나 무진막강한가를 용변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신형대구경방사포들이 계렬생산되게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군대의 다격력을 질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고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박근혜가 지금 뒤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단호》하고 《용감》한척이라도 해보려고 무진애를 쓰며 미국놈들과 맞장구질을 해대며 무모한 무력증강놀음을 벌려놓고 《선제공

격》까지 운운하고있는데 이는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누가 봐도 못하고 어리석은것이라고 하시면서 역대 집권자들이 림종을 앞두고 마지막발악을 하던 때를 편상시키는 박근혜의 광기는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계속하는것으로 필연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그 어떤 집권자가 올라와도 박근혜와 같이 무분별하고 못한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우주리용권리를 빼앗아보려고 생대를 써오

던 적들이 우리를 겨냥한 저들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있는 지금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진행한 새로운 무기체계시험을 높고는 또 어떤 요사스럽고 간교한 꾀설을 늘어놓으며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발악할지 두고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박근혜《정권》이 미제를 겨냥하고있는 우리의 핵타격무장의 조준경안으로 자발로 계바라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당장 견어치우고 리성적으로 분별있게 처신하고 실사속고 해야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 3 면 으 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 2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일 박근혜가 미국상선의 핵전쟁책동에 편승하여 못한 불장난질을 해머며 존엄성은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사소한 군사적양동질이라도 저질러놓는다면 그때에는 미처 후회할 시간적여유도 가질 수 없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웅적 조선인민군은 섬멸의 포문을 열어두고 박근혜의 생존욕과 생존방식을 지켜

볼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 문에서 조성된 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반의 최후결전준비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번 시험사격에서 그 위치가 확충된 신형대구경방사포를 비롯한 최근 개발한 타격무기들을 최고사령부의 작전전역들에 하루빨리 실전배비함으로써 적들이 제방에서 최후의 총발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불편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들이 과시성, 위협성의 각종 전략전술무기들을 조선반도의 남쪽땅에 배비해놓고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며 위협공갈을 일삼고있는 지금이야말로 핵무력강화의 필요성을 보다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역사적시기로 하시면서 우리가 핵보유를 선택하고 핵무력을 백방으로 장성강화시켜온 길이 얼마나 선견지명하며 천만년 정당했는가를 확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가 군사적강권을 휘두르며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쟁과 재난을 서슴없이 강요하고있는 오늘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것뿐이라고 하시면서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낼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부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3월8일혁명 5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귀국에서의 3월8일혁명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의 영도밑에 수리아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의 침략과 테르를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완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 105 (2016)년 3월 3일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가 2월 26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지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전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대양결과 평평성설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빛나는 생애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적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출판보도물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오세안지역준비위원회가 2월 18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교본으로 조선정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터 우즈가, 공동위원장들로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협회 후원자 돈 브리외 오스

라말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선문화협회 전국위원장 장 내일 피르제발드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결성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을 널리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량강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월 3일(2016)년 3월초에 삼지연읍에 새로 건설된 문화체육 및 강양시설들과 삼수발전소 건설장, 량강도에 술국장을 현지지도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삼지연학성소년궁전, 삼지연군문화회관, 백두산지구 체육촌, 배계봉국수정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백두산지구에는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거점들인 혁명전적지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전적지일대를 잘 꾸리는것은 혁명의 만년새로운 혁명전통을 전격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를 혁명전적지답게 잘 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것은 량강도당위원회와 첫머리는 임무입니다.》 보고자들은 우리 혁명의 시인이 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 아래 첫 등대인 삼지연지구가 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사회주의 선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 모습들을 펼치고있다고 말하였다. 삼수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수심전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인들을 만들어 발전기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해마다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량강도에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들끓는 현장들에서 경제선봉의 복수리플을 높이 울리며 공연활동을 전후적으로 벌려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적으로 온통히 무장시키고

【조선중앙통신】



# 온 나라를 뒤덮는 경쟁열풍속에 70일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 인다

##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발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높이 받들고 70일전투에 떨쳐나선 남포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비상한 애국열의를 발휘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남포시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70일전투에 참가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화산선전, 화산선전총을 침입식으로 들이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특히 모든 일군들이 로동자들과 농업근로자들과 같이 뛰어들어 경제장국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야 하도록 하고있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작전을 펴고 직관선전, 예술선전, 강연선전활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선전활동을 하고있다.

시의 곳곳에 대중을 위훈장조로 부르며 전투적호소와 표어들이 나날고 방출선전지사의 힘으로 경제선전과 시에술선전에 예술인들의 예술선동이 활발히 벌어져 70일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가부너행진들도 펼쳐나 출근전에 오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온 시가 그야말로 전투적분위기로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있다.

시안의 공장, 기업소에서 혁신적인 새 소식들이 연일 전해져 70일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은 70일전투가 시작된 지금 배후산업용청년3호발전소에 보내줄 발전설비기공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그리고 북상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에 필요한 대량감속기의 총조립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며 북상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보내줄 미루대치기를 비롯한 대안설비생산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경시안팎의 한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코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남포수산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배후리전투를 성파

적으로 끝내고 여러척의 배후리를 걸었던 기세드높이 어구들을 민들없이 갖추고 배너보다 일찌기 바다로 나가고있다.

사회주의수호선의 제1제대제1선항로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의 농사치비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선전선동부들과 수단이 총집중되고 시의 모든 기관, 기업소,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사발같이 떨쳐나선 가운데 농민들이 총동원되어 매일 많은 도시리들을 힘있게 심어내고있다.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기술인재들이 출세하여 뛰어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희생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집중하며 최후승리를 향해 대렬하는 조선의 기상과 본태를 잃지않고 파시히히 하라!》

총정의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에 총집중해나선 혁명적기계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승리의 5월을 향해 북돋아 나가고있다.

70일전투에 전입한 연합기업소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적사수전의 불길, 애국총정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치고 직장들과 작업단로소장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대안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경시안팎의 한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코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남포수산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배후리전투를 성파

적으로 끝내고 여러척의 배후리를 걸었던 기세드높이 어구들을 민들없이 갖추고 배너보다 일찌기 바다로 나가고있다.

사회주의수호선의 제1제대제1선항로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의 농사치비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선전선동부들과 수단이 총집중되고 시의 모든 기관, 기업소,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사발같이 떨쳐나선 가운데 농민들이 총동원되어 매일 많은 도시리들을 힘있게 심어내고있다.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기술인재들이 출세하여 뛰어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희생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집중하며 최후승리를 향해 대렬하는 조선의 기상과 본태를 잃지않고 파시히히 하라!》

총정의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에 총집중해나선 혁명적기계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승리의 5월을 향해 북돋아 나가고있다.

70일전투에 전입한 연합기업소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적사수전의 불길, 애국총정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치고 직장들과 작업단로소장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희생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집중하며 최후승리를 향해 대렬하는 조선의 기상과 본태를 잃지않고 파시히히 하라!》

총정의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에 총집중해나선 혁명적기계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승리의 5월을 향해 북돋아 나가고있다.

70일전투에 전입한 연합기업소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적사수전의 불길, 애국총정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치고 직장들과 작업단로소장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희생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집중하며 최후승리를 향해 대렬하는 조선의 기상과 본태를 잃지않고 파시히히 하라!》

총정의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에 총집중해나선 혁명적기계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승리의 5월을 향해 북돋아 나가고있다.

70일전투에 전입한 연합기업소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적사수전의 불길, 애국총정의 불바람이 세차게 내치고 직장들과 작업단로소장간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 대중의 경쟁열의를 불러일으켜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 강국건설에서 전향의 열풍과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발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와 전제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아들인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 로동자들이 화산선전과 수리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산선전, 화산선전총을 침입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이들은 코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산선전, 화산선전총을 침입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이들은 코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산선전, 화산선전총을 침입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이들은 코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산선전, 화산선전총을 침입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이들은 코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산선전, 화산선전총을 침입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이들은 코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산선전, 화산선전총을 침입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이들은 코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화산선전, 화산선전총을 침입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이들은 코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여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 매일 계획 2배이상 넘쳐 수행 청진강재공장에서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 제7차대회 전에는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약이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 전에는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약이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 전에는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약이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 전에는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약이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 전에는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약이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 전에는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약이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 전에는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약이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청진강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 전에는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70일전투에 로 부분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약이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다.

##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하든 그것을 완수할 줄 아는 사람이다.

